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THE JOURNAL OF ORIENTAL OBSTETRICS & GYNECOLOGY
VOL.24 NO.2 : 126-133 (2011)

加味逍遙散加味方으로 호전된 原發性 月經痛 환자 치험 2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 교실
김덕구, 유동열

ABSTRACT

Two Cases Report of the Primary Dysmenorrhea Treated with *Gamisoyosan-gagambang*

Duck-Gu Kim, Dong-Youl Yoo
Dept. of Gynec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This paper was aim to report the effects of *Gamisoyosan-gagambang* (加味逍遙散加味方) on the Primary Dysmenorrhea patients.

Methods: Two patients who had been suffering from primary dysmenorrhea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y received oriental treatment such as herbal medicine. We gave them *Gamisoyosan-gagambang* several times. During the treatments, we requested them to visit hospital once every two weeks. If they could not come to hospital, we called them to take follow-up. The progress of symptoms was evaluated by visual analogue scale(VAS).

Results: After treatment, most symptoms were improved and also VAS was reduced.

Conclusions: This clinical cases indicate that *Gamisoyosan-gagambang* is effective in treatment of the primary dysmenorrhea patients. More clinical data and studies are requested for the treatment of primary dysmenorrhea.

Key Words: Primary Dysmenorrhea, *Gamisoyosan-gamibang*, Oriental treatment, Herbal medicine.

교신저자(유동열) :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136번지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여성의학과
전화 : 042-470-9661 이메일 : xhappyharux@naver.com

Ⅰ. 緖 論

최근 한의학에 대한 지식이 보편화 되고 여러 대중매체에서 한의학 치료에 대해서 많이 보도함으로써 진통제를 먹고 버티거나 그냥 참던 月經痛 환자들이 한방치료를 원하여 한의원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月經痛은 부인과 질환에서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로 사춘기가 지난 여성의 62%가 월경곤란증을 느끼고 그 중 10%는 매달 1-3일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1].

가임기 여성에게 이렇게 매달 반복되는 月經痛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이 되고 여성들의 직장, 학교, 사회 및 가정의 활동을 저해하게 된다[2].

月經痛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月經痛을 유발하는 특정한 골반 내 병변이 없는 경우는 原發性 月經痛이라 하고 골반 내 병변이 있는 경우는 續發性 月經痛이라 정의한다[3].

原發性 月經痛의 주된 원인은 자궁내막 내의 prostaglandin F2 α가 관여되어 자궁수축이 증가됨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4], 그 치료는 NSAIDs, 경구피임제 등의 약물 요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1,5].

한의학에서의 月經痛은 張仲景이 《金匱要略》에서 "帶下 經水不利 少腹滿痛 經一月再至[6]"라 하여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痛經", "經行腹痛", "經期腹痛", "月水來腹痛" 등의 용어로 불리어 지고 있다[3,7]. 月經痛의 원인은 氣滯血瘀, 寒濕凝滯, 濕熱下注, 氣血虛弱, 肝腎虧損으로 辨證하고 그 치료는 변증논치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8].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原發性 月經痛의 서양의학적 치료는 즉시적인 환자의 통증 조절에는 효과적이지만 초기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닌 일시적인 증상의 경감에 불과하다[9].

이에 저자는 原發性 月經痛의 한방치료를 원해 내원한 환자 2례를 加味逍遙散加味方으로 치료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硏究對象 및 治療方法

1. 硏究對象

原發性 月經痛을 주소로 하여 한방치료를 원해 내원한 환자 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사람 모두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상 별무소견임을 확인하였다.

2. 治療方法

1) 加味逍遙散

當歸, 茯苓, 芍藥, 柴胡, 白朮 각 1錢

甘草, 牧丹皮, 梔子, 乾薑, 薄荷 각 五分

2) 服用方法

2명 모두 加味逍遙散加味方을 하루 2첩 3회로 나누어서 식후에 복용하도록 하였다.

3) 한약 투여 이외에 외용약이나 기타 침구치료 및 기타 한방치료는 하지 않았다.

3. 治療效果의 測定

治療效果는 증상의 정도를 VAS(Visual Analog Scale)로 측정하였으며 통증이 가장 심한 상태를 VAS 10, 통증이 없는

상태를 VAS 0으로 환자에게 평가하도록 하였다. 한약의 복용 상황이나 기타 상태 체크를 위해 한약 복용기간동안 최소 2주에 1번은 내원하도록 요청하였고 내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화로 상담을 하였다.

Ⅲ. 證 例

<證例 1>

1. 환 자: 지민O, 여자, 만 25세, 미혼
2. 주소증: 월경 시작 1-2일 전부터 월경 시작 후 1-2일 까지 지속되는 월경통
3. 산과력: 0-0-0-0
4. 증 상

1년 정도 전부터 시작 된 월경통. 월경 시작 1-2일 전부터 월경 시작 후 1-2일 까지 지속 되는 하복부 통증. 진통제를 복용하지만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낌. 월경통이 시작될 당시 진로 고민과 친구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다고 말함. 월경 주기는 21~25일 주기. 색은 정상. 덩어리는 조금 있는 편.

5. 진 단
   1) 피부색, 체격면색은 노란편. 체격은 보통.
   2) 消 化: 평소에는 잘되는데 신경을 쓰거나 하면 잘 체함.
   3) 食 慾: 좋음. 매운 음식, 밀가루 음식을 좋아함.
   4) 大 便: 보통은 정상이나 종종 변비가 생김.
   5) 小 便: 정상
   6) 口 渴: 口乾, 가끔 입안이 건조함.
   7) 寒 熱: 더위를 좀 더 많이 탐.
   8) 汗: 보통
   9) 舌 診: 설첨이 조금 붉음.
   10) 睡 眠: 별무이상
6. 투여처방

加味逍遙散(柴胡 增量 - 20g) 加 砂仁 神麯 麥芽 5分

7. 치료경과

Table 1. Herbal Medication and Change of VAS of Case 1

기 간	8/16 (월경후3일)	9/6 (월경첫날)	9/30 (월경첫날)	10/17	11/4 (월경후10일)
韓藥投與	투여	투여	투여	투여	투여
月經痛	VAS8	상동	VAS4	상동	VAS1

<證例 2>

1. 환 자: 이수O, 여자, 만 19세, 미혼
2. 주소증: 월경 시작 1-2일에 발생하는 하복부의 심한 통증
3. 산과력: 0-0-0-0
4. 증 상

초경 후 2년째부터 시작된 극심한 월경통. 월경 시작 1-2일에 하복부 쪽으로 심한 통증을 느낌. 심한 경우 학교에 가서도 계속 양호실에 누워있었다고 함. 처음에는 진통제를 먹으면 덜했으나 지금은 진통제를 먹어도 잘 듣지 않음. 좀 예민한 성격이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생리통이 더 심해진다고 함. 생리주기는 28~30일로 정상. 색은 약간 진한 편. 덩어리는 거의 없음.

5. 진 단

1) 피부색, 체격: 면색은 검음. 체격은 키가 작고 약간 마른 편.
2) 消 化: 평소에는 괜찮음. 원래 많이 먹는 편이 아님.
3) 食 慾: 괜찮음.
4) 大 便: 원래는 약간 便秘였으나 지금은 불편하지 않음.
5) 小 便: 정상
6) 口 渴: 평소에 물을 많이 먹는 편. 주로 미지근한 물을 먹음.
7) 寒 熱: 추위 더위를 둘 다 많이 탐.
8) 汗: 보통
9) 舌 診: 설색 赤. 치흔 있음.
10) 睡 眠: 깊게 잠을 못자는 편임.

6. 투여처방

加味逍遙散(白芍藥 增量 - 15g) 加 砂仁 神麯 麥芽 1錢

7. 치료경과

Table 2. Herbal Medication and Change of VAS of Case 2

기 간	10/28 (월경첫날)	11/14	11/29 (월경후2일)	12/16	12/30 (월경첫날)	1/15	2/1 (월경후2일)
韓藥 投與	투여	투여	투여	투여	투여	투여	
月經痛	VAS8		VAS7		VAS5		VAS3

Ⅳ. 考 察

보통 月經痛을 겪는 환자들은 月經을 하는 여성이면 의례히 있는 것으로 여겨 진통제를 먹거나 대체요법으로 일시적으로 통증을 경감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한의학에 대한 지식이 보편화 되고 여러 대중매체에서 한의학 치료에 대해서 많이 보도함으로써 한방치료를 원하여 내원하는 月經痛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月經痛은 월경기간 혹은 월경기간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하복부와 치골상부에서 허리, 대퇴부 등으로 방산되는 동통으로 전형적으로 월경시작과 동시에 혹은 몇 시간 이내에 시작하여 보통 1~2일 정도 지속된다[3,10].

부인과 질환에서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이며 사춘기가 지난 여성의 62%가 월경곤란증을 느끼고 그 중 10%는 매달 1-3일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1].

月經痛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月經痛을 유발하는 특정한 골반 내 병변이 없는 경우는 原發性 月經痛이라 하고 골반 내 병변이 있는 경우는 續發性 月經痛이라 정의한다[3].

原發性 月經痛의 주된 원인은 자궁내막 내의 prostaglandin F2 α가 관여되어 자궁수축이 증가됨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4], 속발성 월경통의 주된 원인은 자궁내막증, 골반울혈증과 같은 복막질환, 난소낭종, 골반염, 자궁선근증, 자궁근종, 자궁 내 폴립, 자궁 내 유착, 자궁내장치, 자궁경부협착, 처녀막 폐쇄 등으로 알려져 있다[1,2].

서양의학에서 月經痛의 치료는 그 원인이 원발성인지 속발성인지에 따라 분류되며 NSAIDs, 경구피임제, GnRHa, Danazol 등의 약물 요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수술까지도 고려한다[1,5]. 특히 NSAIDs는 月經痛 및 月經痛과 관련된 요통, 구토, 현기증, 불면증이나 두통에도 효과를 나타내는데 반면 nausea, diarrhea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하며, asthma, allergic disorders, hypertension, peptic ulcer, nasal polyp, angioedema, bronchospasm 등의 환자에게는 사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1,11].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은 月經痛의 서양 의학적 치료는 즉시적인 환자의 통증 조절에는 효과적이지만 초기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닌 일시적인 증상의 경감에 불과하다[9].

한의학에서는 月經痛은 張仲景이《金匱要略》에서 "帶下 經水不利 少腹滿痛 經一月再至[6]"라 하여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痛經", "經行腹痛", "經期腹痛", "月水來腹痛" 등의 용어로 불리고 있다. 月經痛의 원인은 氣滯血瘀, 寒濕凝滯, 濕熱下注, 氣血虛弱, 肝腎虧損으로 辨證하고 그 치료는 변증 논치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8].

加味逍遙散은 逍遙散에 牧丹皮 梔子를 가미한 처방으로 逍遙散은 宋代 陳[12]의《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처음 등장하는데《傷寒論》의 四逆散에서 枳實을 去하고 當歸, 白朮, 白灼藥, 薄荷, 乾薑을 가미하여 疏肝하는 동시에 健脾를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逍遙散의 구성약물에서 柴胡는 疏肝解鬱하여 肝氣를 條達하고 當歸는 養血行滯하여 調經하며 白灼藥은 養血柔肝, 緩急止痛 하는 작용을 한다. 當歸와 芍藥을 合用하면 肝陰을 培養하고 肝氣를 疏散시켜 肝血이 充滿하게 하고 肝氣의 條達이 잘 이루어지므로 月經이 순조로워진다. 白朮과 茯笭은 健脾調氣하여 脾氣를 建運케 하고 氣血이 化生하도록하며 薄荷는 芳香條達로 解鬱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柴胡를 도와 疏肝하는 작용을 높인다. 甘草는 益氣和中, 緩急止痛하며 生薑은 辛散和胃行滯하므로 白朮의 運脾작용을 돕는다[13-16]. 逍遙散에 가미되는 牧丹皮와 梔子는 肝膽三焦의 鬱熱을 泄하고 凉血하는 작용을 한다[17]. 따라서 加味逍遙散은 肝鬱血虛를 化熱生血하는 逍遙散의 主治에 火鬱을 겸한 경우에 많이 사용 된다[18].

월경통에 대한 기존 한의학 연구에는 이 등[19]의 소음인 藿香正氣散加味方을 투여한 월경통 환자 20예에 대한 임상보고, 조[20]의 원발성 생리통에 대한 桂枝茯笭丸 단독치료와 침치료 병행 차이 연구, 장 등[21]의 七製香附丸製劑의 原發性 月經痛에 대한 임상적 효과, 임 등[22]의 玄附理經湯加味의 氣滯血瘀型 月經痛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임상적 고찰, 문 등[23]의 女高生 月經痛에 대한 酒煮當歸丸의 효능에 관한 임상적 연구, 최 등[24]의 桂枝茯笭丸의 생리통 환자에 대한 임상 효과 등이 있지만 月經痛 환자에 대한 加味逍遙散의 치료 효과는 아직 보고 된 바가 없다.

이에 저자는 原發性 月經痛의 한방치료를 원해 내원한 환자 2례를 加味逍遙散加味方으로 치료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1의 환자는 면색이 약간 노란편이고 보통 체격의 86년생 여자환자로 1

년 정도 전부터 시작된 월경통으로 고생하다가 한방 치료를 원하여 내원하였다. 월경통은 월경 시작 1-2일 전부터 시작되어 월경 시작 후 1-2일 까지 지속되었으며 통증 양상은 아랫배와 허리 쪽으로 우리한 느낌이 지속적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매번 진통제를 1알 복용하지만 진통제가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며 심한 경우 집 밖에 못나갈 정도로 통증이 있어서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내원하였다. 상담 시 월경통이 시작될 당시 진로 고민과 친구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다고 말하였으며 월경 주기는 조금씩 당겨지는 편이고 색은 정상이고 덩어리는 조금 있는 편이라고 했다.

肝氣鬱結로 인한 月經痛으로 진단하여 상기처방을 투여하였으며 肝鬱이 심하다고 판단되어 疏肝解鬱하는 柴胡를 증량하였고 소화 작용을 돕기 위하여 砂仁 神麯 麥芽 를 가하였다. 증례 1의 환자는 월경 시작 직후 내원하였었는데 투약 후 첫 월경 시에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았으며 월경 시작 전과 월경 1-2일째의 통증이 많이 경감되었다고 하였고 덩어리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투약 후 두 번째 월경 시에는 월경 시작 전에는 통증이 아예 없었고 월경 시작 후에는 아주 약간의 통증을 느꼈다고 하였으며 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뒷목과 머리가 종종 아팠는데 상기 약을 복용 후 그런 증상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증례 2의 환자는 면색이 검고, 키가 작은 편인 약간 마른 체격의 93년생 여자 환자로 월경 시작 후 1-2일에 발생하는 하복부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증상은 그 이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중학교 3학년 여름 무렵부터 시작된 극심한 월경통으로 월경 시작 1-2일째에 쥐어짜는 느낌의 통증이 하복부 쪽으로 퍼진다고 하였다. 통증이 심한 경우 허리를 펴기도 힘들며, 학교에 가서도 계속 양호실에 누워있었다고 하였고 처음에는 진통제를 먹으면 덜했으나 지금은 진통제를 여러 알을 먹어도 잘 듣지 않는다고 했다. 평소에 좀 예민한 성격이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생리통이 더 심해진다고 하였다. 생리 주기는 정상이고 색은 약간 진한 편으로 덩어리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 상담 결과 학업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많이 예민한 성격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성적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여 역시 肝氣鬱結로 인한 月經痛으로 판단하여 상기처방을 투여하였다. 투여 시 통증이 유달리 심하고 근육에 쥐가 가끔씩 난다고 하여 養血柔肝, 緩急止痛 작용이 있는 白灼藥을 증량하였으며 소화 작용을 돕기 위하여 砂仁 神麯 麥芽를 가하였다. 증례 2의 환자도 월경 시작 직후 내원하였는데 투약 후 첫 번째 월경 시에 전에 비해 통증이 경감되었다고 말하였으며 진통제는 1알을 먹었다고 하였고 투약 후 2번째 월경 시에는 통증이 많이 경감되었으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후 한 번을 더 투약하였으며 환자의 부모님이 금전적 부담을 많이 느껴 더 이상 투약할 수 없었지만 세 번째 월경 후 전화 상담을 한 결과 월경통이 불편함을 별로 못 느낄 정도로 경감 되었다고 했으며 투약 전에는 종종 다리에 쥐가 나곤 했는데 약을 복용한 이후로 그런 증상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Ⅴ. 結 論

본 증례는 原發性 月經痛을 주소로 하여 한방치료를 원해 내원한 환자 2명에게 加味逍遙散加味方을 투여하여 치료 후 月經痛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거나 거의 소실되었으며 기타 증상도 호전됨을 확인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었음을 보고하는 바이며 앞으로 더욱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더 많은 임상보고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투 고 일 : 2011년 4월 30일
□ 심 사 일 : 2011년 5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5월 11일

參考文獻

1.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부인과학. 서울:도서출판 칼빈서적. 1997: 214-55.
2. 장영심. 고려수지요법이 여대생의 생리통 및 월경곤란증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3. 한의부인과학교재편찬위원회. 한의부인과학(상). 서울:정담. 2001:177-82.
4. 오성택. Dysmenorrhea and cyclic pelvic pain. 대한산부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1998;21-5.
5.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산부인과학. 서울:군자출판사. 1999: 70-2.
6. 장중경. 정통금궤요략. 서울:의학연구사. 1983:443.
7. 楊思澍, 張樹牲, 傳景華. 中醫臨床大全. 서울:의성당. 1993:609-12.
8. 정학수 등. 청소년기 월경통 환자에 대한 耳鍼치료의 임상적 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2;15(4):186.
9. Dawood MY. Dysmenorrhea. J Reprod Med. 1985;30(3):154-67.
10. Susan L et al. Primary dysmenorrhea treatment with a desogestrel-containing low-dose oral contraceptive. Contraception. 2002;66:393-9.
11. 김탁. 월경통의 병인 및 치료지침.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05;48(7):1613-20.
12. 陳師文.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5:308.
13. 楊恒茂, 張文閣. 實用中醫婦科方藥學. 蟾蜍:蟾蜍科學技術出版社. 1983:44-6, 119, 121, 125, 136, 138, 175, 239.
14. 何國樑. 實用婦科方劑. 廣州:廣東科技出版社. 1997:92-3.
15. 遊士勳, 張錦淸. 實用中醫方劑學. 台北:藥群出版社. 1983:133-5.
16. 張豊强. 現代方證學. 北京: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2.
17. 楊蘊祥, 劉翠榮. 古今名方. 河南: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3:249-50.
18. 金在瑩, 柳同烈. 丹梔逍遙散에 關한 文獻的考察. 大田大學校韓醫學硏究所論文集. 1999;7(2):531-51.
19. 이인선 등. 소음인 곽향정기산가미방을 투여한 월경통 환자 20예에 대한 임상보고.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4; 17(2):168-83.
20. 조정훈. 원발성 생리통에 대한 계지복령환 단독치료와 침치료 병행 차이 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7; 20(1):161-68.
21. 장준복 등. 七製香附丸製劑의 原發性

月經痛에 대한 임상적 효과.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5;18(1):156-68.
22. 임정한 등. 玄附理經湯加味의 氣滯血瘀型 月經痛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2;15(4):228-37.
23. 문덕빈 등. 女高生 月經痛에 대한 酒煮當歸丸의 효능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5;18(2):83-99.
24. 최가야 등. 桂枝茯苓丸의 생리통 환자에 대한 임상 효과.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4;17(1):178-86.